

사노 요코 그림책에 나타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와 표현기법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방법 및 범위

II. 사노 요코와 그림책

1. 작가 삶과 그림책

2. 그림책 종류 및 내용

III. 그림책에서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와 표현 기법

1. 고양이 그림책 사례분석

2. 시사점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황순선

초 록

한국은 오래전부터 '고양이 양화'에 대한 선입견으로 고양이를 많이 꺼리는 문화였지만 근래 들어 반려동물로 고양이가 증가하고 고양이 소재로 그림책과 에세이, 웹툰 등이 국내 독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노 요코 그림책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출판된 그림책의 약 50%가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이며 이중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이다.

연구방법은 사노 요코 그림책에 표현된 고양이 캐릭터가 그림책 스토리 주인공 외에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를 중심으로 국내 번역 출판된 작가의 고양이 캐릭터 그림책 5권을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로 도출된 그림책의 고양이 캐릭터 성격 및 상징적 의미와 표현기법을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사노는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가 고양이듯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사랑할 것을 그림책에 담고 있다.

결론으로 그림책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작가 자신이고 때로는 아들과 엄마로 상징됨을 알 수 있었다. 공통으로 사용된 캐릭터 색과 유사한 질은 윤곽선은 온유한 캐릭터와 때로는 독선적인 강한 성격 그리고 정적이거나 동적인 움직임을 극화시키고 있다.

주제어 : 사노 요코, 고양이 그림책,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 표현기법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동화작가 황선미는 우리가 살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을 기억하며 산다면 현재와 노년 삶이 달라질 거라 이야기한다.¹⁾ 그만큼 동화는 매력적인 문학과 여기에 일러스트가 더하여질 때, 그림과 글 공간에서 독자만의 상상은 더하여질 수 있다.

근래 들어 그림책 시장은 여러 장르와 다양한 일러스트 표현 방식, 레이저커팅을 사용한 그림책의 아트디자인 등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예로 어린이가 주 타깃이었던 그림책 시장이 삶의 지혜와 공감적 내용 및 아트 디자인 기획 등으로 성인독자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려운 출판 여건을 타파하려는 보림과 비룡소 같은 출판사의 주도적 기획 출판 노력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지역 내 그림책 읽기, 그림책 문화 활동가와 성인독자의 변화로 보고 있다.

홍대 부근을 중심으로 그림책 독립출판과 전문그림책 서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림책 문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성인 그림책 읽기 동호회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원주는 2016년 지자체 지원을 받아 ‘그림책 특화도시’로 지정되어 연구조사로 방문했을 때, 강릉의 커피 카페처럼 원주 지역이 그림책 카페 문화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괴산의 ‘숲속 작은 책방’처럼 그림책 기반의 작은 책방이 북 스테이(Book Stay) 등과 매월 열리는 북 워크숍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Book Show’ 등 이벤트를 기획 발표하는 등 그림책 문화를 주도하는 예는 그림책 관련자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그림책을 선호하는 성인층이 두꺼워지는 이유로는 그림책에서 많은 공감, 위로와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예로 이솝우화부터 시작된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레오

1) 황선미, 『동화 창작의 즐거움』, 사계절, 2006, p.4.

리오니(Leo Lionni)와 셸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우화 그림책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까지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힘이 있다. 그중에 우화 표현인 ‘100만 번 산 고양이’ 작가 사노 요코도 그림책 작가 기반으로 꾸준히 출간한 에세이로 어린 독자를 넘어 성인 독자에게도 독특한 스토리와 캐릭터 힘으로 다가간다.

죽음을 앞둔 사노가 자신 그림책,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가 삶의 마지막인 노년에 읽었으면 하고 희망했다. 이는 노년 마음이 아이와 같기 때문이라 했지만, 그림책 속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²⁾ 일반적으로 그림책은 인생에서 세 번을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어렸을 때,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 마지막으로 노년에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책의 공통점은 삶을 사유하는 작가 인생관 또는 고전 철학이 스며있어서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독자에게 스토리와 캐릭터로 감동을 주고 있다.

분석으로 제시된 [표 1]은 국내에서 출판된 사노 요코(글, 그림)의 11권 그림책이다.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은 5권이 며, 연구 목적은 ‘사노 요코 그림책과 에세이에 공통된 창의적 발상과 은유적 시각표현’ 연구를 기반으로 사노 그림책의 고양이 캐릭터 성격 및 상징적 의미를 표현기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사노의 그림책 내용과 캐릭터의 의미 분석에서는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의 ‘현대 그림책 읽기’에서 기호학처럼 지면 위의 지시어들을 읽고 그림책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책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임’을 참고하였다.³⁾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 연구를 위해서는 황순선의

2) 황순선, 「사노 요코 그림책과 에세이에 공통된 창의적 발상과 은유적 시각표현」, 『일러스트레이션포럼』, Vol. 52 (2017), p.28.

연구논문(2017)을 선행 연구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사노 그림책에 표현된 고양이 캐릭터가 그림책의 스토리 주인공 외에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중심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작가의 고양이 캐릭터 그림책 5권,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1975), 100만 번 산 고양이(1977), 좀 별난 친구(1978), 나는 고양이라고! (1993), 하늘을 나는 사자 (1993)를 사례로 분석한다.

Ⅱ. 사노 요코

1. 작가 삶과 그림책

사노 요코(佐野洋子 Yoko Sano, 1938~2010)는 1938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일본이 패전한 1947년, 부모 형제와 함께 일본으로 귀향한다. 일본 무사시노대학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후 1966년 독일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관화를 공부했다.

그림책이 작가 철학을 포함하여 스토리와 캐릭터의 디테일 등 한 편의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얇은 책 1권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사노도 자신 삶의 한 단면을 그림책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첫 기억이 되는 베이징, 전후(戰後) 일본과 대학 생활 및 독일유학,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양이 등 일상이 작가 그림책과 에세이의 평생 소재였다.

예로 베이징 생활은 ‘북경의 아이’ 동화책으로, 독일 유학은 그림책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와 에세이 ‘슈바르츠 헤르트(검은 마음)’로 발표했다. 가족 및 친구에 관해서는 ‘사는 게 뭐라고’와 ‘추억이 뭐라고 등 에세이로 발표했으며 고양이 주제로 ‘내 고양이들아, 용서해줘’를 포함한 다수 에세이가 있다. 어렸을 때 잠시 중국에서 누렸던 부귀영화와 패전 후 일본에서

3) 데이비드 루이스, 『현대 그림책 읽기』, 작은씨앗, 2008, p.254.

생활 중 유일하게 의지했던 오빠와의 추억은 ‘열한 살 우리 오빠’ 동화로 발표했다. 어린 시절에 잃은 오빠와 두 남동생 및 아버지 죽음, 힘들었던 엄마와의 갈등은 사노가 사망 직전에 발표한 치매 엄마와 화해 및 사랑에 관한 에세이인 ‘나의 엄마 시즈코상’에 담아 출간하였다.

이처럼 전후 일본의 힘들었던 시기와 형제 죽음 및 엄마의 학대 그리고 자신의 우울증과 암 등 치열했던 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견뎌온 사노의 독립적 자아는 에세이와 그림책을 통하여 독특한 자아의식과 냉소주의적 표현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1971년 ‘엄소의 이사’를 펴내며 그림책 작가로 데뷔했고, 그림책과 에릭 칼(Erick Carl) 그림책 번역 및 동화 등으로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고단샤 출판문화상, 일본 그림책 상, 쇼가쿠칸 아동 출판문화상 등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상 대부분을 수상했고 2008년 평생 그림책 작가 활동의 공로로 이와야 사자나미 문예상을 받았다.⁴⁾

사노 그림책에는 삶의 지혜와 작가 메시지가 있으며 그림책 초반은 ‘100만 번 산 고양이’처럼 우화 표현방식으로 발표했고 중후반은 ‘나는 고양이라고!’와 ‘산타클로스는 할머니’ 같은 판타지 그림책으로 발표했다. 각 그림책은 독특한 일러스트 표현으로 독자에게 글과 함께 상상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작가 특유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짧고 반복적인 리듬 문체는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도 쉽게 다가가며 이론과 논리가 아닌 감성적 접근 그림책으로 독자에게는 그림책 상황에 따라 유쾌한 정서적 공감을 갖게 한다.

사노는 자신 그림책이 꼭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림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림책들은 이러한 작가 철학과 예술적 창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82년 발표한 첫 에세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 부는 대로’에서 작가는 자신이 그림책 만드는 것은 어린

4) 사노 요코의 생애. <http://www.office-jirocho.com/about/index.html>, 2017.7.10.

시절 자기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림은 보통사람으로 계속 그렸기 때문이고 “보통사람이 보통인 자신에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고” 고백한다.⁵⁾ 요즈음 그림책이 성인독자로 확대되는 현상과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해 관련 강좌를 찾아 많은 사람이 글쓰기와 그림책 만들기를 수강하고 있지만, 평생을 자기 안의 어린이를 찾아서 창작했다는 사노의 그림책 철학은 그림책 작업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내 번역 출판된 사노의 에세이 15권을 살펴보았을 때 주제와 소재 등이 그림책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작가의 삶과 철학이 드러나며 꾸준히 발표한 그림, 글 작업과 번역, 개인전 등이 결국 사노를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와 동화 작가, 수필가로 만들었고 작가의 사후, 7년이 넘은 지금도 미발표 에세이(사는 게 뭐라고 등)를 아들인 겐 히로세가 편집하여 계속 발표하고 있다.

2. 그림책 종류 및 내용

다케우치 오사무(竹内修 Takeuchi Osamu)는 ‘그림책은 재미있다’에서 그림책의 글은 장면과 장면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라고 주장한다.⁶⁾ 조앤 골든(Joanne Golden)은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대칭, 글과 그림이 서로 의존 또는 글과 그림이 서로 주요한 내러티브를 전달하는데 선택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세분화하여 설명한다.⁷⁾

그림책은 열다섯 장으로 이루어지는 비주얼 스토리텔링 세계로 [표 1]의 사노 그림책 11권(글과 그림)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내용과 시각 표현기법은 일상을 소재로 지혜와 유머가 리듬적인 문체로 표현된 비주얼 스토리텔링 중심의 디자인이다.

5) 사노 요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 부는 대로』(1982), 북폴리오, 2016, pp. 153~159.

6) 다케우치 오사무, 『그림책은 재미있다』, 문학동네, 2008, p.6.

7) 데이비드 루이스, 앞의 책, p.91.

황순선(2017)은 사노 에세이와 그림책을 비교했을 때 발표 연도에 차이를 두고 내용 또는 발상 캐릭터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작가는 유년시절인 중국추억과 전후 일본의 어려운 시절에서 오빠와 두 남동생을 일찍 여의며 어른의 회로애락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는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우화적 내용과 ‘태어난 아이’ 같은 판타지 그림책으로 발표하여 죽음과 탄생에 관한 냉소적인 독특한 은유적 시각표현을 보여준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사노는 평생 삶을 통하여 나온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림책에서 은유적 시각 표현으로 이야기와 그림을 냉소적이지만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사노의 그림책 내용은 일상을 소재로 ‘내 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인화, 우화와 판타지 표현방식을 가진다. 예로 ‘그렇게는 안 되지’ 수필에 소개된 어떤 여자는 처음 사노 집을 방문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우산을 빙빙 휘두르며 집안으로 갖고 들어온다. 그리고 “봐요, 이 우산 디오르야. 디오르 우산이야”라고 계속 자랑을 한다.⁸⁾ 이는 1992년 발표한 ‘아저씨 우산’ 그림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그림책의 아저씨는 우산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여 비가 오는 날조차도 우산을 품에 고이 모시고 남의 우산을 빌려 쓴다는 냉소적 풍자지만 곧 아이들이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또롱 또롱 또로롱...’ 소리를 내자 자신도 리듬감 있는 그 소리가 궁금해 소중한 우산을 활짝 펼치며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음미한다.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도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들 때문에 잘 수 없고, 떨어지는 낙엽을 계속 치우기 힘들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저씨는 나무를 베어버린다. 이듬해 아저씨는 나무 그늘에서 차를 마실 수도 빨간 열매를 얻을 수도 없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영영 울어버린다. 바로 그때 나무 그루터기의

8) 사노 요코, 『그렇게는 안 되지』, 서커스출판상회, 2017, p.214.

과란 싹을 발견하고 정성껏 키운다. 자연 친화적이었던 사노는 이처럼 작가 주변의 일상 소재를 가지고 그림책에서 삶의 지혜와 메시지가 있는 우화와 판타지 표현방식을 취했다.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는 일본에서 1992년에 출판됐고 이듬해 나온 ‘나는 고양이라고! (1993)’와 함께 국판(210x148) 크기로 그림과 글이 상호 보완하며 작가의 우화적 메시지를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그림책 제목	주인공 / 내용
나는 고양이라고!	고양이 와 고등어/ 고양이 자아인지
내 모자	나/ 주인공의 모자 에피소드
100만 번 산 고양이	고양이 / 환생과 죽음 그리고 사랑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	아저씨/ 나무의 성가심과 고마움
산타클로스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의 산타 도전과 사랑
아빠가 좋아	곰/ 가족의 사랑
아저씨 우산	아저씨/ 아저씨의 별난 우산 사랑
좀 별난 친구	고양이 와 뱀/ 친구의 우정
태어난 아이	아이/ 태어나기 전과 후의 변화
하늘을 나는 사자	사자, 고양이 / 사랑, 희생, 자아회복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할머니, 고양이 / 5세가 된 할머니

표 1. 사노 요코의 11권 그림책과 주인공 및 내용 (고양이 그림책은 바탕색으로 표시함)

Ⅲ. 그림책에서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와 표현기법

1. 고양이 그림책 사례분석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사노의 고양이 소재 그림책은 모두 5권이다.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100만 번 산 고양이’, ‘좀 별난 친구’, ‘나는 고양이라고!’와 ‘하늘을 나는 사자’를 사례연구로 각 그림책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스토리과 표현기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례연구의 분석 그림책 제목과 그림(fig)에서는 그

림책의 일본판 출판연도, 논문에 인용된 에세이의 분석 내용과 참고문헌은 국내 출판연도로 명시하였다.

1)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1975)

사노는 베를린 유학 시절의 발랄한 심술을 가진 주인집 할머니와 홀로된 이웃 할머니들에 관한 기억으로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그림책과 ‘슈바르츠 헤르트(검은 마음, 1990년)’란 수필 등을 발표한다. 죽음을 앞두고 2009년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의 개정판이 나왔을 때 작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든 할머니에게 이 그림책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밝혔다. 즉, 작가는 어린이 그림책이지만, 치매 어머니 자신처럼 할머니가 되면 가장 아이다운 본성만 남아 이때 읽는 그림책이 인생의 정수가 된다고 느낀 것이다.⁹⁾

(1) 스토리와 표현기법

씩씩한 수고양이와 함께 사는 98세 할머니는 날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오는 고양이의 낚시방법을 궁금해 한다. 그러나 함께 낚시 가자는 수고양이에게 ‘98세 할머니가 낚시하는 것은 안 어울리지.’라고 말하며 집 앞 의자에 앉아 콩깍지만 깐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외아들을 키울 때처럼 수고양이의 모든 행동에 관심은 많지만, 조심스레 관망만 한다. 99세 할머니 생일을 맞은 날, 맛있는 케이크에 필요한 99개 초를 수고양이가 실수로 5개만 남겨 온다. 울상이 된 수고양이와 달리 할머니는 사노 특유의 유쾌함으로 말한다. ‘5개 초라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지.’라고 초를 가리키며 1살, 2살, 3살, 4살, 5살 하고 나이 숫자를 세던 순간에 바로 할머니는 5살처럼 되어 고양이를 따라 ‘하지만 나는 5살인걸.’을 반복하며 수고양이를 따라 아이처럼 즐겁게 낚시를 따라 다닌다.

그림책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성과 표현기법으로는 첫 장면인

9) 황순선, 앞의 책, p.28.

외판집 문을 사이로 놓인 장화와 조그만 나무의자는 활동적인 수고양이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상징한다. [그림 1]의 수고양이는 할머니 손주처럼 서로 얼굴이 매우 흡사하다. 마치 작가의 친방지축 아들을 상징하는 수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사노의 이야기 같다.¹⁰⁾ 중간의 콩 까는 할머니 이미지는 3년 뒤 출간한 그림책, ‘좀 별난 친구, [그림 3]’의 중간 이미지에서도 같은 집 앞 나무의자에 앉아 고양이와 같이 콩을 까고 있다.[그림 1] 오른쪽 이미지는 마치 곱게 단장한 사노의 외아들이 유치원가기 전 모습처럼 수고양이가 낚시채비를 하며 모자를 까꿍 놀이하듯 폭 눌러쓴 모습이다. 이는 의인화를 표방한 사노의 그림책에서는 매우 드문 사랑스러운 고양이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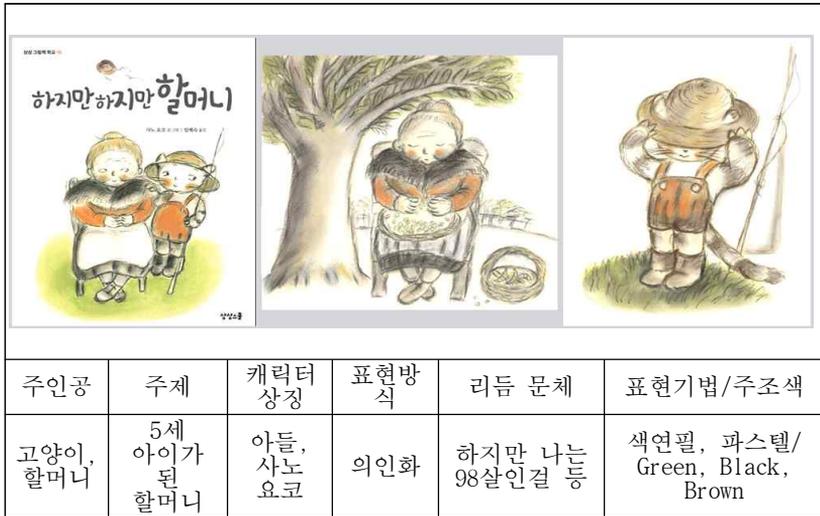


그림 1.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1975

색연필과 파스텔을 이용했지만, 컬러는 초록, 검정과 갈색으로 제한하였고 어두워질 수 있는 전체적 분위기에 주홍색을 할머니와 수고양이 옷에 포인트로 주어 할머니와 수고양이 관계를 보

10) 황순선, 앞의 책, p.28.

다 친밀하고 따뜻하게 보여주었다. 그림책의 절정 이미지는 케이크를 맛있게 들고 있는 할머니와 수고양이의 행복한 표정으로 사노는 주홍색 포인트로 두 캐릭터의 옷과 얼굴 및 배경 속의 초 빛 반사광으로 화사함을 극대화했다.

2) 100만 번 산 고양이(1977)

사노 에세이와 그림책의 약 80%는 자아(Ego & Self Identity)를 주제로 주인공의 정체성과 가치관 등 강한 개성을 담아낸다. 세계적으로 150만 부 이상 팔린 ‘100만 번 산 고양이’도 강한 개성을 가진 고양이를 캐릭터로 작가는 환생 및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작가 특유의 냉소적이며 리듬 언어를 반복 사용하여 그림책 스토리에 힘을 주고 있다.

(1) 스토리와 표현기법

100만 번 산 고양이 이야기로 백만 번 환생과 죽음에서 자기를 기르던 임금, 선원, 할머니와 아이는 고양이 죽음을 무척 슬퍼했지만, 주인공 고양이는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매순간 자기 죽음조차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공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닌 얼룩무늬 도둑고양이로 혼자 떠돌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한다.

자기 자신만 알던 주인공 얼룩 고양이가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던 하얀 고양이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헌신을 다한다. 이후 둘은 새끼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주인공 고양이는 자신 목숨보다 하얀 고양이와 새끼를 더 사랑하게 된다. 어느 날 하얀 고양이가 죽자 주인공 고양이는 백만 번이나 울었고 하얀 고양이 옆에서 다시는 환생하지 않았다는 우화적 표현으로 은유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는 사노의 생전 마지막 책이었던 ‘나의 엄마 시즈코상’의 마지막 구절에서 “고마워요. 엄마 곧 갈게요, 당신 곁으로”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황순선은 연구(2017)에서 밝히

고 있다.

그림책 고양이의 캐릭터 상징성과 표현기법으로는 [그림 2]에서 보여주듯 표지 주인공은 초록색 눈이 아주 매력적인 얼룩고양이로 100만 번이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고양이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는 사노의 삶에서 모든 상황이 만만치 않았으나 견뎌왔던 세월 속 사노를 상징하고 있다. [그림 2] 중간 이미지에서도 독고양이로 생선을 배불리 먹고 달빛 아래 행복한 포만감으로 누워있는 고양이 눈 또한 그림책 속 환생했던 여러 고양이와는 달리 표지 고양이처럼 초록색을 띠고 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5권 사례 그림책 중에서 유일하게 글과 그림이 좌우 대칭 구조이며 수채화로 표현한 등장 캐릭터들은 작가 특유의 윤곽선을 사용하여 배경과 분리 또는 캐릭터 동작을 강조하고 있다.

주인공	주제	캐릭터 상징	표현 방식	리듬 문체	표현기법/주조색
고양이	자아, 사랑	사노 요코	우화	백만 번 등	수채화/Black/Brown/Blue

그림 2. 100만 번 산 고양이, 1977

3) 줌 별난 친구(1978)

‘줌 별난 친구’는 어린 독자에게 텍스트가 많은 그림책으로 사노의 어릴 적 친구, 히로를 소재로 만든 진짜 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림책 발간 14년 후 나온 에세이, ‘탈장’은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만난 히로와의 추억담이다. 작가는 어렸을 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친구 같았는데 항상 놀다 보면 곁에 남아있던 친구가 히로였다고 회상한다. ‘좀 별난 친구’는 사노와 히로처럼 전혀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고양이와 뱀의 만남 같은 은유적 표현을 담고 있다.¹¹⁾

(1) 스토리와 표현기법

수고양이를 친구로 생각하는 할머니와 달리 주인공 수고양이는 할머니가 아닌 진짜 친구 찾기를 나섰다. 길가의 파란 밧줄을 본다. 수고양이가 재미있게 줄넘기하면서 길을 가려고 밧줄을 들어 올린 순간 징그러운 뱀이라 깜짝 놀라 피한다. 수고양이는 나무 밑에서 쉬고 난 후 건다가 자신을 따라온 뱀을 다시 만나자 매우 당황하며 뱀을 따돌린다. 수고양이가 길에서 만난 예쁜 고양이로부터 거절당해 슬퍼할 때 뱀이 나타나 위로해 주지만 징그러워다고 생각한 뱀에게 서둘러 작별하고 진짜 친구를 찾아 나선다.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징그러운 뱀을 피해 보았지만,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구해준 뱀을 할 수 없이 친구로 인정하며 함께 집으로 와 할머니에게 심드렁히 소개하는 우화적인 스토리다.

캐릭터 상징성으로 첫째 고양이와 뱀은 사노와 친구 히로를 상징하며 둘째 할머니는 사노이며, 개성 강하고 의기양양한 수고양이는 아들을 상징한다. 작가의 ‘자식이 뭐라고(2016)’ 수필에서 ‘절친’ 편은 많은 부분이 자신과 아들, 또 아들 친구 이야기로 아들은 친한 친구들과 절친 동맹을 맺으며 초등학교 내내 엄마보다 친구들과 더 붙어 다닌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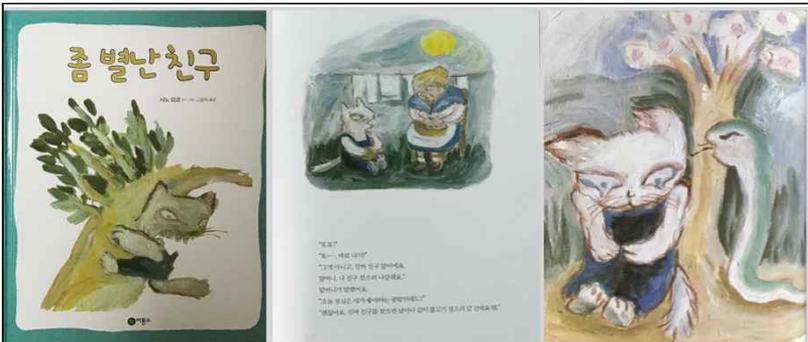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 그림책 중에서 유일하게 우화의 거친 붓 터치 질감이 잘 나타난다. 뱀을 보고 놀란 고양이

11) 황순선, 앞의 책, p.29.

12) 사노 요코, 『자식이 뭐라고』, 마음산책, 2016, pp. 53-60.

눈, 입과 털 등이 그림책 표지 등 장면 장면마다 단순하게 처리되었지만, 사노는 캐릭터 표정과 동작을 극대화 시켰다.

대부분 내지 이미지를 2단으로 하여 글과 이미지가 서로 의존하는 구성이다. 때로는 뱀과 고양이가 처음 만나서 놀라는 장면은 전면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주고 있다. 슬픈 고양이를 위로하는 뱀을 대칭 이미지로 글과 그림이 상호 선택적으로 주요한 내러티브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의태어, 의성어, 노래들은 글로 설명하고 있으며 작가의 선호컬러인 파랑과 녹색을 주조 색으로 했지만 갈색 윤곽선을 사용해 선의 리듬감을 주고 있다.



주인공	주제	캐릭터 상징	표현 방식	리듬 문체	표현기법/주조색
고양이, 뱀, 할머니	진짜 친구	사노 요코	우화	또요? 등	유화/ Green/Blue

그림 3. 줌 별난 친구1978

4) 나는 고양이라고!(1993)

사노가 55세에 만든 그림책으로 작가의 다른 그림책(15~16장)보다 6장 그림이 더 추가된 ‘나는 고양이라고!’ 는 텍스트가 가장 적지만 시퀀스로 디자인되어 독자에게 2D 화면에서 영상미

를 느끼게 한다.

(1) 스토리와 표현기법

[그림 4, no. 2]처럼 거울을 보고 멋있게 단장한 검은 고양이[no. 3]가 숲을 산책하던 중 고등어 떼가 날아오며 “네가 고등어를 먹었지!” 노래하며 고양이를 쫓아 위협을 가한다[no. 4~6]. 바다도 아닌 숲속을 날아 주인공을 공격하는 고등어 무리에 고양이는 깜짝 놀라 “나는 고양이야! 고양이라고!” 눈을 꼭 감고 외치며 도망친다[no. 7]. 공포를 느끼며 숲을 빠져나와 시내로 도망간 고양이[no. 8]는 전봇대에 매달렸다가[no. 9] 극장으로 피신하지만, 곧 고등어 떼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no. 11~12] “나는 고양이야! 고양이라고!” 다시 크게 외치며 도망을 간다[no. 13~14]. 결국, 숲으로 도망쳐온 고양이는 나무 기둥을 잡고 고양이기 때문에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나더러 어찌란 말이야? 나는 고양이야. 고양이라고! [no. 15]” 하며 울분을 토한다. 마지막 부분[no. 16]은 곧 진정된 고양이가 다시 고등어 먹을 생각을 하며 즐겁게 산책을 이어간다.

여기서 [그림 4]의 [no. 7과 14]는 고양이가 고등어 공격을 받아 시내로 또다시 숲으로 피해 눈을 꼭 감고 달리는 것을 검정 화면으로 상징화하는 반복 구조이다. [no. 11과 12]는 극장에 앉아 있는 고등어를 보고 놀라 두리번거리는 고양이 이미지 양면을 반복 사용하여 글 없이 강한 긴장감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 마무리 이미지[no. 16]는 그림책의 시작 이미지[no. 3]를 다시 사용하여 평화로운 숲속에서 고등어 먹을 생각을 다시 하는 검은 고양이의 고집스럽지만 당당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생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노를 압축해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늘로부터 고등어 떼가 나타나고 극장의 관객은 모두 고등어로 과장되게 표현한 [그림 4]의 [no. 3~6]과 [no. 12~13] 이미지는 수채화로 표현된 그림책이지만 절제된 색채와 선 느낌과 초현실적 표현기법으로 작가의 독일 유학에서 공부한 석판화 느낌을 보는 듯하다. 또한, 앞, 뒤표지에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푸르고 싱싱한 고등어를 앞에 두고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까? 하는 고양이의 흥분된 표정과 온몸의 털을 세우면서도 코 주변 털은 떨림으로 처리하여 이미지만으로도 독자에게 충분히 고양이의 불안한 심리적 내러티브를 잘 전달하고 있다. 뒤표지 [no. 1]은 고양이가 고등어의 머리와 뼈만 남기고 맛있게 다 먹은 이미지이다. 하지만 다른 그림책, ‘좀 별난 친구’의 작가 말 이미지에 ‘나는 고양이라고!’의 [no. 1] 이미지는 푸른 고등어 이미지로 약간 수정되어 다시 사용하고 있다.

‘나는 고양이라고!’는 사노의 그림책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판타지 표현방식과 고리 구조의 글과 그림으로 상호 내러티브를 강하게 보완하고 있다. 초현실 표현기법을 사용했으며 작가 특유의 냉소적 어휘를 담았다. ‘나는 고양이라고? 그러니 어찌라고?’를 울부짖듯 반복 리듬을 통하여 보는 독자에게 동적이며 고양이의 고집스러운 자아에 공감을 갖게 한다.

사노의 에세이를 읽다 보면 삶과 죽음과 작가 자신, 가족 및 친구 등에 대한 일상 소재를 거침없이 독특하고 냉소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고양이라고!’는 에세이에서도 나타나는 사노의 식욕과 강한 고집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도망가며 식은땀을 흘리는 은유적 시각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나는 고양이라고! 1993

5) 하늘을 나는 사자(1993)

작가의 일반 그림책과는 달리 ‘하늘을 나는 사자’는 사노가 등장 캐릭터의 심리묘사를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책이지만 시각 이미지와 텍스트로 작가 특유의 사색적 의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이기적인 주변 친척 고양이를 향한 사자의 삶은 희생이었을까? 아니면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혹독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을 다 하며 견뎌야 했던 지친 사노 내면의 어린 자신(사자)을 찾아 깊은 잠으로 쉬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1) 스토리와 표현기법

[그림 5]의 표지처럼 멋진 갈기에 “어흥!” 하고 하늘을 날

듯 멀리 뛰어올라 사냥을 해 맛난 음식을 차려주는 사자를 찾아 친척 고양이가 매일 찾아온다. 힘찬 걸모습과는 달리, 사자는 낮잠 자는 게 취미고 힘들 때는 쉬고싶어 한다. 사자가 낮잠 자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고양이들은 까르르 웃고 농담으로 받아넘기며 계속 사자를 치켜세우고 음식만 얻어먹는다.

결국 지친 사자는 계속 힘들게 가져온 음식만 당연히 먹고 즐기는 이기적인 고양이에게 환멸을 느끼고 울다가 쓰러져 황금빛 돌사자로 변해 버린다. 그 후 영원히 잠자는 돌사자로 지내다 어느 날 엄마와 새끼고양이가 사자에게 ‘많이 피곤한 사자였구나! 하는 따뜻한 위로 말에 깊은 잠에서 깨어 다시 우렁차게 ‘어흥’ 소리를 내며 하늘로 힘차게 오른다.

사노는 어린 시절, 한 번만이라도 엄마 칭찬과 엄마의 손을 잡아 보고 싶었던 5살의 아린 상처가 있다. 작가는 ‘나의 엄마 시즈코상’에서 “생각해보니 딱 한 번, 물을 길어 온 내게 어머니가 토마토를 손에 쥐여 준 적이 있다. 그때 기쁨과 토마토의 빨간 빛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엄마는 얼마나 다정한가 하는 생각을 했고 마음속에는 밝은 토마토 불빛이 켜졌다.” 처럼 사자(어린 사노)는 고양이(사노의 엄마)의 진정한 사랑을 갈구했다.¹³⁾

그림책의 사자는 강렬한 색 대비와 거친 붓 터치로 얼굴색이 상황 따라 Yellow-Orange, Yellow-Sky Blue, Sky Blue, Golden Yellow와 마지막으로 본래 색인 Yellow-Orange로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다. 사자가 자기 의지로 즐겁게 어울리고 일을 할 때는 사자 본연의 Yellow-Orange이었으나, 점점 자신에게 가중되는 임무로 지쳐갈 때는 Sky Blue와 Cobalt Blue로 변해가며 힘든 사자 표정뿐 아니라 내면의 불편한 심리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했다.

반면에 첫 장부터 사악한 표정의 고양이들은 계속 용감한 사자를 부추기면서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점점 심술꾸러기에 비아냥 거리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사노가 거친 붓의 단순한 면 처리로

13) 사노 요코, 『나의 엄마 시즈코상』, 이레, 2010, p.65.

표현한 이기적 고양이 캐릭터지만 표현 이미지만큼은 독자에게 웃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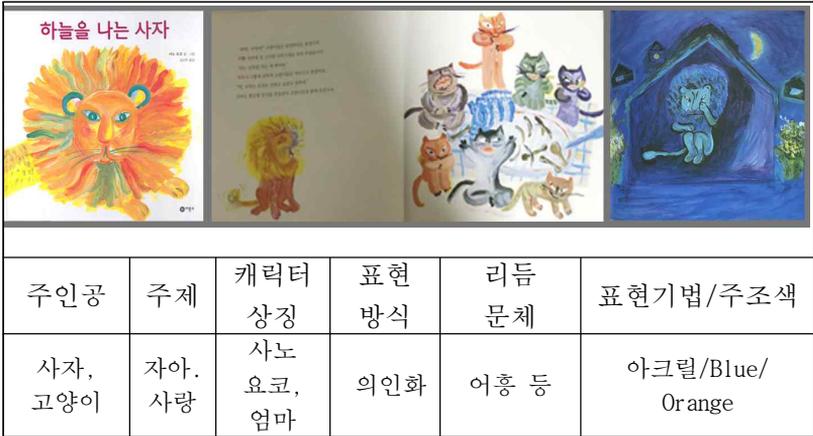


그림 5. 하늘을 나는 사자 1993

2. 시사점

그림책에서 캐릭터는 매우 중요하며 작가가 설정한 성격과 내용에 따라 독자는 캐릭터를 좇아 이야기 흐름에 행복해하거나 슬프기도 하다. 에세이 등을 통해 사노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작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처럼 그림책에도 고양이가 주인공 또는 ‘아저씨 우산’ 그림책처럼 배경 속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고양이를 통해서 삶, 사랑, 죽음, 행복 등의 주제로 사노는 ‘하늘을 나는 사자’ 처럼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공감을 준다.

1) 작가와 고양이

사노의 에세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 부는 대로’의 ‘내 고양이들아, 용서해줘’ 편을 보면 사노는 생애 처음 만난 이웃집 고양이 ‘다마’를 비롯해 오빠와 함께 괴롭혔던 ‘길고

양이’와 아들로 인해 처음으로 자신이 키우게 된 고양이 두 마리를 비롯해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세상에 외치듯 가장 못난 새끼 고양이를 입양해 의기양양하게 키운다.¹⁴⁾

하지만 못생긴 새끼 고양이의 억척스럽게 먹는 것과 집 안 구석구석을 점령군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른 두 마리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슬슬 피한다. 이 모습을 보고 사노는 자신이 견뎌온 삶이 못생긴 새끼 고양이처럼 기가 세게 세상과 싸우며 산 것 같은 깊은 우울감으로 새끼 고양이를 동생에게 보내려 하지만 너무 못생긴 모습에 입양을 거절당한다.

이처럼 사노는 여러 고양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미안한 마음과 고양이 복수를 두려워하여 평생 고양이에게 관대했고 친구로 생각했다. 마치 사람처럼 고양이를 생각해 고양이에게는 자신의 불편한 속마음을 보이지 않았고 그림책과 에세이에서 고양이 사랑을 다양하고 따뜻하게 묘사했다. 작가는 “고양이 말에 따라 썼더니 한동안 먹고살게 해주었다”고 ‘이것 좋아 저것 싫어’에서 고백한다.¹⁵⁾

사노의 고양이 그림책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성은 대부분 출판된 다른 작가의 고양이 그림책과는 다소 다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예로 작가의 ‘100만 번 산 고양이’처럼 밀리언셀러인 영국 주디스 커(Judith Kerr)의 고양이 모그(Mog)¹⁶⁾는 반려묘로 모그 시리즈를 통하여 각 그림책의 에피소드로 인기를 얻었지만, 사노의 고양이 그림책은 각 고양이 속성이 다르며 작가 또는 작가의 주변 인물로 이중적 상징됨이 다르다.

2) 그림책 속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

작가의 에세이를 보면 어렸을 때 오빠의 죽음과 어머니의 잦

14) 사노 요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 부는 대로』, 북폴리오, 2016, pp. 116~130.

15) 사노 요코, 『이것 좋아 저것 싫어』, 마음산책, 2017, pp. 262~263.

16) 영국의 영국 주디스 커에 의해 1970년 처음 출간된 ‘Mog the Forgetful Cat’과 2015년 발표된 ‘Mog’s Christmas Calamity’로 17권 모두가 모그라는 단일 고양이 일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

은 확대는 작가에게 삶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느끼게 했다. 그래서 사노는 평생 꾸준하게 글 쓴 것은 자신 맘속의 상처뿐인 아이에게 찾아가 위로하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말한다. 일본 여러 문학상을 받은 성공한 작가로 본연구의 사례 그림책 속에서 사노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사랑’이다. 이는 작가가 어머니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이며 아들을 향한 자신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례연구의 5권 그림책에서 세부적으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에 관하여 정리했을 때, 사노 그림책 속 고양이 캐릭터는 작가의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를 담고 있고 엄마와 아들로 때로는 미래의 사후(死後) 할머니를 상징하고 있다. 예로 ‘좀 별난 친구’에서는 소꿉친구인 히로와 추억으로 고양이 자신이 어린 사노였으며,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에서는 외아들과 실랑이 하는 사노(할머니)로 상징이 된다. ‘100만 번 산 고양이’와 ‘하늘을 나는 사자’에서는 현실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 도피하고 싶었던 사노의 마음을 죽음, 환생, 깊은 잠으로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고양이라고!’에서는 평생 사노가 세상에 가졌던 냉소적이고 자신만만 작가의 자유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셸 실버스타인이 1996년 발표한 ‘고양이와 아이와 엄마(A Cat, A Kid, and A Mom)’에서 고양이가 외친다. “난 고양이라고, 고양이!” “난 고양이이며 앞으로도 죽 그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¹⁷⁾ 실버스타인의 고양이 표현이 사노의 ‘나는 고양이라고!’와 얼마나 비슷한가?

실버스타인과 사노는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가 고양이 듯, 아이와 엄마를 이해해 달라고 즉,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17) Shel Silverstein, 「A Cat, A Kid, and A Mom」 <https://asifyoucare.wordpress.com/2008/12/23/a-cat-a-kid-and-a-mom-by-shel-silverstein/>, 2017.08.01.

IV. 결 론

테레사 콜러머는 ‘그림책의 미학’에서 21세기 스페인에서 출간되어 도서 비평가들이 선정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도서 250권 중 절반이 감정과 정서를 소재로 한 그림책이었다고 언급한다.¹⁸⁾

이처럼 그림책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사노 그림책도 이론과 논리가 아닌 감성적 접근 그림책으로 짧고 반복적인 리듬 문체는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도 쉽게 다가가며 통쾌한 정서적 공유점을 갖게 한다. 사노는 그림책뿐 아니라 많은 에세이를 발표하며 그 안에 고양이 이야기를 담았고 그림책과 에세이를 상호 비교하였을 때 작가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림책의 고양이 캐릭터 상징성이 작가와 작가의 주변 인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시기 연작 개인전(1992년과 1993년) 제목이 ‘여자의 일생 - PART1’ 과 ‘여자의 일생 - PART2’ 로 발표되어 연구자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사노 요코 그림책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는 첫째,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에서는 친방지축 아들이다. 둘째, ‘100만 번 산 고양이’에서는 자유의지가 강했던 사노의 젊은 시절을 뜻한다. 셋째, ‘좀 별난 친구’의 고양이는 어렸을 때 사노와 자기 아들로도 상징된다. 넷째, ‘나는 고양이라고!’는 초현실 표현기법 사용으로 마치 독일 시절 ‘검은 마음’으로 표현되었던 젊은 사노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며 다섯째, 1993년 발표했던 ‘하늘을 나는 사자’의 고양이는 평생 사노가 삶에서 생존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엄마의 모습을 상징한다.

표현기법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지만 모든 그림책 공통으로 사용된 캐릭터의 색과 유사한 질은 윤곽선은 운유한 캐릭터와 때로는 독선적인 강한 성격 그리고 정적이거나 동적인 움직임에 극화시키고 있다.

18) 테레사 콜러머의, 『그림책의 미학』, 교문사, 2014, 2014, p.60.

각 그림책에 표현된 사노의 할머니 이미지는 모두 비슷하지만, 할머니 캐릭터는 197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신 삶을 드러내듯 부드럽게 또는 강하거나 애뜻하게 색연필, 파스텔 또는 유화와 펜 등으로 컬러 재료를 달리 사용하며 표현재료의 속성을 캐릭터에 담아냈다.

예로 작가가 죽음을 앞두고 2007년에 출간한 ‘산타클로스는 할머니’에서는 사노가 사후에 하늘나라로 가 남자의 전유물이었던 산타클로스 모집에 도전하여 사랑하는 손녀에게 가는 강한 할머니의 소망을 담았다. 파란색 펜을 이용한 선 드로잉에 파랑, 빨강을 주조 색으로 하면서 손녀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작가가 모든 그림책에 사용한 초록으로 작가의 행복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 속성은 주인 곁에 항상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주인과 동떨어져 낯선 느낌을 주는 묘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노의 에세이와 그림책 대부분 소재는 작가 주변의 일상으로 고양이도 그에 포함된다. 자신의 고양이로부터 작가는 수많은 고양이 에세이와 그림책을 창작했으며 이는 그림책 관련자에게 우리 주변의 창작 소재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루이스, 『현대 그림책 읽기』, 작은씨앗, 2008, p.254.
다케우치 오사무, 『그림책은 재미있다』, 문학동네, 2008, p.6.
테레사 콜러머외, 『그림책의 미학』, 교문사, 2014, p.60.
황선미, 『동화 창작의 즐거움』, 사계절, 2006, p.4.
황순선, 「사노 요코 그림책과 에세이에 공통된 창의적 발상과 은유적 시각표현」, 『일러스트레이션포럼』, Vol.52 (2017), pp.28-29.
사노 요코. 사노 요코의 생애. <http://www.office-jirocho.com/about/index.html>, 2017.7.10.
Shel Silverstein, 「A Cat, A Kid, and A Mom」 <https://asify>

oucare.wordpress.com/2008/12/23/a-cat-a-kid-and-a-mom-by-sh
el-silverstein/, 2017.08.01.

사노 요코의 그림책

- 사노 요코, 『나는 고양이라고!』, 시공주니어, 2004.
_____, 『100만 번 산 고양이』, 비룡소, 2002.
_____, 『산타클로스는 할머니』, 서울:나무생각, 2008.
_____, 『좀 별난 친구』, 비룡소, 2013.
_____, 『태어난 아이』, 거북이북스, 2016.
_____, 『하늘을 나는 사자』, 비룡소, 2005.
_____,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상상스쿨, 2017.

사노 요코의 에세이

- 사노 요코, 『그렇게는 안 되지』, 서커스출판상회, 2017.
_____, 『나의 엄마 시즈코상』, 이레, 2010, p.65.
_____, 『문제가 있습니다』, 쌤터, 2017.
_____, 『사는 게 뭐라고』, 마음산책, 2015.
_____,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을유문화사, 2017.
_____,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 부는 대로』, 북폴리오, 2016, pp.
116~130.
_____, 『어쩌면 좋아』, 서커스출판상회, 2017.
_____,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을유문화사, 2017.
_____, 『열한 살 우리 오빠』, 폴라리스, 2006.
_____, 『이것 좋아 저것 싫어』, 마음산책, 2017, pp. 262~263.
_____, 『자식이 뭐라고』, 마음산책, 2016, pp. 53~60.
_____, 『죽는 게 뭐라고』, 마음산책, 2015.
_____, 『추억이 뭐라고』, 늘, 1992.
_____, 『친구가 뭐라고』, 늘, 2017.
_____,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다』, 눈과마음, 2005.

ABSTRACT

Symbolic Meaning and Expression Techniques of Cat Characters in Picture Books by Yoko Sano

Hwang, Soonsun

Cats used to be long avoided in Korean culture due to prejudices on their negative implications, yet they are increasingly being favoured by domestic readers along with a growing number of cat lovers, picture books, essays and webtoons.

In the case of Yoko Sano's work, half of her published books in Korea depicts cats. Among those is 'The Cat That Lived a Million Times' which is a worldwide million seller.

The research analyses five picture books on cats published in Korea, focusing on finding out symbolic representation of cats other than merely being the protagonist of the book. Sano asserts that we respect our own free will and love ourselves just as cats do in her books.

In conclusion, cats in Sano's work mostly represent the author herself, which are sometimes depicted as mother and son. The colours and thick outlines of her cats, unlike tender characteristics, describes self-righteous strong personality, while emphasising both static and dynamic movements.

Key Word : Yoko Sano, Cat Picture Book, Symbolic Meaning of Cat Character, Expression Technique

황순선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Tel : 02-710-9524
hwang2s@sm.ac.kr

논문투고일 : 2017.11.01.
심사종료일 : 2017.11.29.
게재확정일 : 2017.11.29.